

국립민속국악원 초청, 전라북도립국악원 교류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공연

상·상·上·相 그리고,

2017.7.11(화)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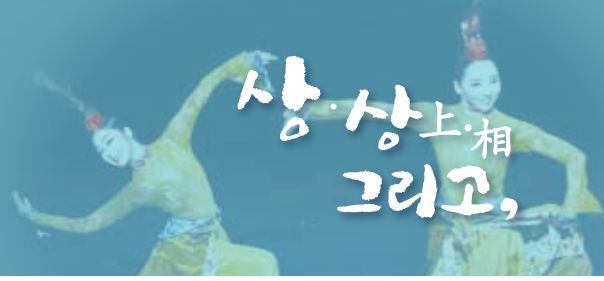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주 최_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국립민속국악원, 전라북도립국악원
공연문의_063-620-2324



※ 본 공연은 도민여러분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무료로 진행합니다.

무릇 전통은 기원무나 의식무처럼 위를 향한 인간의 기원을 담거나 사람과 사람을 어루 만지고 따뜻하게 위안이 되어주는 민속무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풍요의 마음을 담았다. 작품 〈상·상·상 그리고〉는 전통을 토대로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여 기원과 풍요의 마음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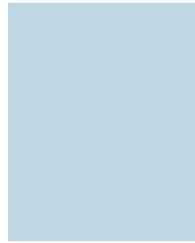


제 1부 상·상·상



• 태평성대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으로 한국적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궁중무의 일종이다. 왕과 왕비의 위엄을 드러내며 꽃과 한삼으로 나라의 안녕과 화평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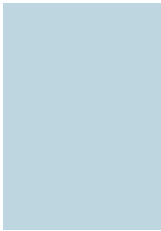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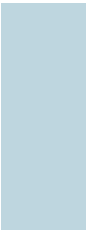


• 탐라훈령무

훈령무는 조선시대 제주관가인 목관아에서 훈련하는 훈령대장의 모습을 형상화한 춤이다. 절도 있는 동작을 통해 정연된 형식미를 강조하면서도, 당당하고 역동적인 춤사위를 덧입혀 남성다운 힘과 기상을 표현한 목관 훈령무는 대장부의 웅맹한 정신세계를 담고 있다.

• 아박무

궁중정재음악의 시작과 끝을 마름질하는 악기인 '아박'을 사용하여 만든 아박무는 고려시대 이후 여기들이 추던 '동동'이란 춤이 조선시대에 명칭이 바뀌었다. 궁중정재의 웅장함과 남성의 강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빠르고 활기차게 창작된 이 작품은 남성들의 열정적인 몸짓과 아박을 칠 때 들리는 강한 소리가 잘 어우러진 작품이다.



• 향발무

향발무는 역사적으로 조선 전기에 창작된 향악정재(鄕樂呈才)의 하나이다. 향발(響鉢)이라는 작은 제금을 매듭 끈으로 묶어 술을 아래로 늘어뜨려 엄지와 검지에 끼고 마주 쳐서 소리를 내며 추는 춤이다. 궁중무의 일종인 향발무를 새롭게 창작하여 소리와 춤의 어우러짐을 모색했다.



제 2부 상·상·상



• 앵무새춤

앵무새의 움직임의 춤으로 이미지화 한 작품으로 손목과 목의 독특한 사용을 통하여 새의 부리가 움직임이 춤을 형태화하였다. 가야금의 빠른 음악에 맞추어 앵무새가 지저귀는 듯한 분위기를 살린 이 춤은 빠르고 역동적인 춤으로 창작되었으며, 구성의 변화를 통하여 마치 새들이 교차하면서 비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 제주놀이

역사적으로 일과 놀이는 분리되지 않았다. 일이 놀이로 승화되어 삶의 애환을 극복해가는 선인들의 지혜는 삶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말이 많은 제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말채찍을 활용한 춤과 채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 갑순이와 갑돌이

‘갑순이 갑돌이’는 대중적인 음악에 락중이 인형의 귀엽고 예쁜 모습을 오버랩 시켜 삶의 한 일면을 희극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한 마을에서 서로 사랑하지만 말을 못하는 옛 사람들의 정서를 바탕으로 희로애락을 표현하여 웃음과 재미를 더해 유쾌하게 풀었다.



• 해녀춤

해녀춤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해녀'를 소재로 창작한 작품으로 제주도에서 유독 돋보이는 '해녀'의 모습을 춤으로 형상화하였다. 이춤은 '오돌또기'라는 제주민요에 맞춰 추는데, 거센 파도와 싸우고 숨비소리를 내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어가는 강한 해녀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여 제주의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 북과 소고놀이

북춤과 소고놀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춤이다. 북춤은 주로 농악의 북잡이가 추는 춤으로, 북채 2개를 양손에 들고 북을 치면서 추는 쌍북채춤으로 변화무쌍한 리듬 뿐 아니라 춤사위가 화려하고 흥이 있다. 소고는 작고 움직이기 편하기에 악기와 몸짓의 다양한 변화를 춤화 시키기에 적합하다. 북춤과 소고놀이는 남성적인 북과 여성적 소고를 바탕으로 멋과 흥을 덧입혀 창작된 작품이다.